

God With Us (Peace)하나님과 함께 (평화)

보 스텐-브레이디

2023년 12월 10일

Bo Stern-Brady

December 10, 2023

When the war in Israel broke out in October, we had an immediate reminder of our world's deep need for peace. We watched horrors unfold in front of our eyes - the resul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at give us front row seats to the atrocities that have been at work in our world for centuries. Apparently our ability to create a wholly interconnected world has not helped improve our ability to create peace with one another inside of that world.

이스라엘에서 10월에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는 평화에 대한 우리 세계의 깊은 필요를 즉각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공포를 지켜봤습니다. 이는 세기 동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난 잔학한 일의 결과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그 잔학한 일들의 전면 자리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연결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세계 안에서 서로 평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We long for peace. I long for peace. I wonder about the life my grandchildren will face and I wonder if I'm doing anything to leave this planet more peaceful than I found it. (Stats - anxiety in America is at levels that would have institutionalized people in the 50's.). We are a frantically fearful people. How do we find peace?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갈망을 안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 궁금하며, 이 행성을 내가 발견했을 때보다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통계 - 미국의 불안 수준:(통계 - 1950년대에는 사람들을 기관에 수용시킬 만큼의 수준) 미국에서의 불안 수준은 역사적인 기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한 사회입니다.우리는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평화를 찾는 방법:

혼돈 가운데서도 평화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적 평온을 기르고, 이해를 촉진하며, 동정심을 키우는 것이 모두 평화로 향하는 집단적인 여정에 기여합니다.

Often, in the old Testament, after Israel fights a wins battle with a bitter enemy, the writer will end the story with: "And Israel had rest on every side." 고대 성서에서 이스라엘이 쓴 적대적인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종종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쪽에서 안식하였더라."

That's such a beautiful definition of Shalom - rest on every side. 샬롬의 "모든 쪽에서 안식"이라는 정의는 정말로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Take a moment to process: How does your life feel right now in

terms of having true peace - rest on every side? Is there a side that feels exposed or vulnerable to anxiety or injury or confusion? (Results of life with no peace: Bad decisions, discouragement and depression, debilitating anxiety, distanced relationships, etc.)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현재 모든 측면이 안전한 진정한 평화를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측면이 불안, 부상 또는 혼란에 노출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불안, 부상 또는 혼란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평화 없이 살면 나쁜 결정, 낙담과 우울, 허약한 불안, 멀어지는 관계 등의 결과를 이해하세요. 취약성을 해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회복력을 기르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여, 살림으로 표현되는 삶을 추구하세요

Jesus stepped into our world with a big, bold title: Isaiah 9 calls Him the Prince of Peace. The Prince who's kingdom is made of peace. The Prince who rules not with an iron hand, but with infinite love. 예수님은 크고 강력하게 우리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그를 평화의 왕자라고 부릅니다. 그 왕자의 나라는 평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왕자는 철 주먹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This same Prince said to his disciples: 왕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John 14:27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떠나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주는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이 거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요한복음 14:27

He promised not just to be the King of our peace, but also to leave that same peace with us. This raises the important question: How do we experience it? How do we live in it? I think one word is as helpful as any when trying to figure this out. One word has within it so much possibility because it's a sort of peace activator and the word is: Perspective." "그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은 평화를 우리에게 남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체험하나요?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나요? 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의 단어가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는 '관점(Perspective)'입니다."

One perspective on peace is: I will have peace in my life if I can control the circumstances around me. If I can save enough money or get the right job or get into the right relationship or put the right security system in my house. If we get the right leaders in our government, if we make the right alliances with other nations, if we secure our border or stockpile our weapons. These systems will put peace within reach of my own control. Even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want to figure it out - how do I make sure I know the rules and stay inside the lines and keep God on my good side? How do I build systems that will bring me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은 평화를 우리에게 남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체험하나요?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나요? 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의 단어가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는 '관점(Perspective)'입니다."There's a weird little story in Matthew that I've been ruminating on this week. The sadducees - they're the guys who know every letter of the law in Israel. They're the experts. They have studied every line of the Torah - they've memorized it. And yet...they come to Jesus with a tricky situation. 매튜 복음서에 있는 이상한 작은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두개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의 줄을 연구했고 그것을 암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까다로운 상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Matthew 22. A woman who is unlucky enough to have seven husbands die...then she dies herself ...whose wife will she be in the resurrection? They are trying to trap Jesus in their system because their system gives them control over everyone. They make and enforce the rules. They maintain an ordered religious life. Jesus replies: "You are wrong because you know neither the Scriptures nor God's power." Jesus tells them, you are looking to build a system you can control in front of a God you cannot. You will never find peace in creating a God after your own image. You will never find peace in domesticating his power because He is always willing to come in and upend our preexisting systems in order to show us the only way to true peace.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곱 번의 남편을 잃은 불운한 여자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도 죽게 되고, 그 후에 부활에서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시스템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한 종교적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만, 너희가 구축하려는 그 시스템은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너희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데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능력을 길들이는 데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우리가 이미 가진 시스템을 뒤집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Revelation 1 is a beautiful passage that feels so right for this, the second Sunday of advent...

This i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요한계시록 1장은 아름다운 구절로 두 번째 주일의 대기(Advent)에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May grace (God's unmerited favor) be granted to you and spiritual peace (the peace of Christ's kingdom)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and trustworthy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the first to be brought back to life) and the Prince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ever loves us and has once (for all) loosed and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own blood, and formed us into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 to him be the glory and the power and the majesty and the dominion throughout the ages and forever and ever. Amen."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계신 이시요, 계시며, 오실 이시니...그리고 오실 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고 믿음직한 증인,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땅의 왕들의 주;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제로 삼으셨으니,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John goes on to describe the immeasurable power of God the most beautifully expansive way: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says the Lord God, He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the Ruler of all). Revelation 1:8 요한은 신의 무한한 힘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에 따르면:"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주 하나님이 말하시되 '곧 계신 자이시요, 계시고 오실 이시요, 전능하신 이시로다 (만유의 주재).'"

The vision in Revelation describes a God who's power breaks through all our systems, who's power is so far over and above our own, that any illusion of control looks ridiculous by comparison (example.) My pastor once said that fear is the misuse of the gift of imagination. Our imaginations run wild with what could be...what could go wrong. What if we opened up our imaginations to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What if we asked our great God to fill us with thoughts and dreams of His power at work in our world, in our homes, in our worries, in our decisions? Constantly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God tells the people of Israel - who are always up against one big enemy or another - REHEARSE God's faithfulness to throughout your history. Retell the stories. Remind each other. THIS IS HOW BIG GOD HAS BEEN TO US. This is how He has been our prince of peace. And in doing so, they are moving their perspective to the power of God instead of the power of the things that want to destroy them. (I've been doing this lately. When fear starts to hover and buzz, I remind myself of something great that God has done for me and I ask him to fill my imagination with all the great things He could yet do as I rest in Him...Ephesians 3 tells me his power is even BIGGER than anything I could imagine, so I'm going to keep dreaming and keep fixing my mind on His goodness and love for me and I'm going to give myself permission to live in the peace that comes from that.)

계시록 속의 비전은 우리의 모든 체계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힘을 묘사하며, 그 힘은 우리의 통제 노력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예시로, 두려움은 상상력의 잘못된 활용이라는 제사장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의 상상력은 무엇이 될지, 무엇이 잘못될지에 대해 엉뚱하게 난무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 상상력을 개방한다면 어떨까? 위협에서 나올 것이다. 위협에서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걱정, 우리의 결정에서 업적하는 모습에 대한 생각과 꿈으로 마음을 채울 것이라고 하자. 고대 성서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큰 적과 마주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반복하여 연습하도록 요청한다.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서로에게 상기시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 그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었던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려는 대상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동시킨다. (최근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중 하나를 상기하고 그가 나에게 행할 모든 위대한 일에 대한 상상력을 가득 채우도록 그에게 청하며 그 안에서 안식한다...에베소서 3장은 그의 힘이 나의 상상을 능가한다고 말하기에 나는 계속해서 꿈을 키우고 그의 선하심과 나를 위한 그의 사랑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나에게 그로 인한 평화를 허락하기로 했다.)

Our perspective on His power will ultimately determine our perspective on ourselves and our spot on the timeline of human history. Walter Breggemann says this: "It is a sobering admission of Advent to

recognize that we are not the alpha. We are not the beginning point, not self-made, not self-sufficient; before us and behind us is the power for life that is pure gift to be received in trusting gratitude. It is an equally sobering admission of Advent to recognize that we are not the omega." We are not the ending of it all.우리가 그의 힘에 대한 관점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과 우리가 인간 역사의 타임라인에서 차지한 위치에 대한 관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Walter Breggeman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dvent에서 우리가 알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신중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과 뒤에는 신뢰와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할 순수한 선물인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dvent에서 우리가 오메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종결이 아닙니다.

We stand on a point on the timeline that feels ultimate. It feels often that we are standing on the outcome of years and years of history. People say: the world has never been worse than this. For goodness or morality or the church...but it has been worse than this and it has also been better. We are here on purpose for a purpose, but not because God has asked us to control all the outcomes. What, then, HAS he called us to? To what kind of life is Jesus inviting us into during this advent? 우리는 종말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타임라인의 한 지점에서 있습니다. 종종 수십 년의 역사의 결과물 위에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한 일이나 도덕 또는 교회에 있어서 세상이 이보다 나빠진 적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보다 나중았고 나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달의 대기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걸까요?

Exactly the same life he offered his disciples: A life of peace. Peace that transcends our systems or our politics or our disappointments or our fears about the future. Peace that has gone before us. Peace that is with us. Peace that is out in front and is waiting for us. (Every minute story.). 그는 제자들에게 제안한 것과 정확히 같은 삶입니다: 평화의 삶. 우리의 체계나 정치, 실망,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는 평화. 우리 앞서 간 평화. 우리와 함께 있는 평화. 우리 앞에서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평화. (모든 순간의 이야기.).

Understanding that He is God and I am not. That his promise is to be with me in trouble...to move out ahead of my trouble, and even to move through the pages of my history and help establish peace in the painful places I don't like to revisit. Knowing the power of THAT peace is the greatest gift and it is born through faith in God, but also in developing a peace-first perspective that says: "I can't control the outcomes, but I can trust God in the process." I can trust the one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I can refocus my viewfinder and see God in this moment. I choose to see eternal outcomes (develop this.)

이해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나와 함께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서 나아가서 심지어 내 역사의 페이지를 통과하며 내가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곳에서 평화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평화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며, 이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평화 중심의 시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결과를 보기로 선택합니다. (이를 발전시켜보세요.)

Morning and evening peace moments: I invite You to fill my imagination with visions of Your power and goodness at work in my world and in the world inside my heart. I invite You to show me what it means to pull a chair up next to the Prince of Peace and just be loved - even in moments of confusion and craziness. I invite You into the spaces that feel jumbled, where I'm desperately trying to take back control, and ask You to show me how to listen and wait and trust in Your power that is exponentially greater than mine. The power that might not work everything out the way I want, but will meet me with peace in exactly the way I need.아침과 저녁에, 나는 초대합니다:

당신에게 나의 상상력을 당신의 힘과 선의 작용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초대합니다. 나의 세계와 내 마음 속의 세계에서 당신의 힘과 선의 작용을 상상합니다. 나는 평화의 왕 곁에 의자를 끌어당기고 혼란과 미친 듯한 순간에도 단순히 사랑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나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나는 통제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엉망으로 느껴지는 공간에 당신을 초대하고 어떻게 듣고 기다리며 내 힘보다 배로 큰 당신의 힘을 믿고 싶다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힘입니다.